

‘빠빠옹’ 우치동물원 사육 환경 개선하려면

사파리 조성 등 500억 이상 필요 광주시 예산난... 투자자 찾기 난망

동물원의 최대 수입원은 관람료다. 하지만 동물원의 수입을 올려주는 동물들은 그만큼 대접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광주일보 8월 7일자 6면〉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동물원 동물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동물원법’으로 우치동물원 사육 환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른바 동물원법) 개정안은 국내 처음으로 동물원에 사는 동물의 존엄성·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로 내년 4월이면 동물원 사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많은 관람객들을 불러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쓴 말 못하는 동물 사육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동물원 환경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광주 우치동물원 동물들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 데는 얼마나 필요할까.

우치동물원 측은 동물 사육 기준이 확정되면 사육 시설 재정을 위해 500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10년 2월 발표한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예상한 금액이다.

동물원은 단장, 기린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테라스를 갖추거나 맹수 등이 야생을 느끼며 돌아다닐 수 있는 사파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11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단계 사업으로 큰 물새장·원숭이 섬 등 10종의 동물 우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70억 원이다.

또 동물원 중앙광장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열악한 해양 동물 우리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220억 원이 필요하다. 이 사업계획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생태형 동물원 조성을 골자로 한 것이다.

문제는 예산.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 형편 등을 들어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가 앞서 추진한 이러한 사업계획도 투자업체를 찾기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광주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동물원법은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가두고 있는 일부 동물원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폭염’에 가려진 ‘입추’

광주·전남 땀별더위 여전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立秋)’인 7일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올들어 가장 높은 36.8도까지 치솟았다.

올 최고기온은 지난 6일 관측된 구례 35.7도였다. 7일 낮 최고기온은 화순이 36.8를 기록했고 ▲구례 36.8도 ▲광주 36도 ▲영광 36도 ▲함평 35.9도 ▲해남 35.9도 ▲곡성 35.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훌쩍 뛰어넘어 습막히는 ‘땀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날 나주·곡성·구례·장성·화순·광양·해남·광주 등 11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담양·고흥·보성·여수·순천·장흥·강진·완도 등 12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습도도 높아 불쾌지수는 이날 오후 3시에 80.6까지 올랐다. 불쾌지수 75~80은 50% 사람이, 80 이상은 모

든 사람이, 85 이상은 매우 심하게 불쾌감을 느끼는 수치다.

이날 광주의 새벽 3시계 습도는 87%로 ‘후텁지근’했고, 아침 최저기온은 26도로 관측됐다.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8일에도 광주·전남의 땀별 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으나 곳따라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26도, 낮 최고기온은 32도~36도 분포로 전날보다 다소 낮 기온이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지역 폭염(일 최고기온 33도 이상) 기간은 3일로 예년(10년)보다 0.7일 많았고, 열대야는 11일로 예년보다 7.1일 많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7분 해질 19시 29분 달출 06시 54분 달몰 19시 55분

일사병 조심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 이어지겠다.

광주	맑음	26/36°C
목포	맑음	26/34°C
여수	맑음	26/33°C
나주	맑음	25/36°C
완도	맑음	26/34°C
구례	맑음	24/36°C
강진	맑음	26/34°C
해남	맑음	26/33°C
장흥	맑음	26/34°C
순천	맑음	24/34°C
영광	맑음	26/36°C
진도	맑음	26/34°C
전주	맑음	26/37°C
군산	맑음	25/36°C
남원	맑음	24/36°C
옥산도	맑음	26/32°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위험 매우높음 매우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위험 매우높음 매우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위험 매우높음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목포 03:10 08:22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여수 09:49 03:42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22:14 15:50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날씨						
최저/최고	26/35	26/34	25/33	25/33	25/33	25/33

월남개발지구 학교용지 확보 놓고

광주교육청 - 동구청 ‘갈등’

“개발사업자가 내놔야” “기존 폐교부지 활용” 맞서

광주시교육청과 동구청이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 확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개발사업자인 동구청이 당연히 학교용지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지만 동구청은 기존 폐교부지 활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7일 광주시교육청과 동구청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월남동에 총 27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월남지구 개발사업은 도심공동화로 도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동구청이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기 위해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2015년 6월 완료되며 694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

이다. 704가구가 들어서는 2단계 사업은 2016년에, 3단계 사업은 1천302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2017년 사업이 마무리 된다.

시교육청과 동구청이 대립하는 것은 월남지구에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 때문. 관련 법률에 따라 300가구가 이상인 택지개발사업은 당연히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교육당국에 공급해야 하며 월남지구도 초등학교 부지가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월남지구 사업부지 중앙에 초등학교 폐교부지가 있어 개발사업자인 동구청이 새로운 학교용지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동구청이 반드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잡종지로 분류돼 있는 폐교 부지와는 상관없이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당연히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만큼의 용지보상을 동구청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용지 공급 관련 관계기관 협의 절차까지 동구청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월남지구 안에 있는 지원초 폐교부지를 학교용지로 활용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폐교부지 8000㎡가 있는 만큼 25개 학급에 맞는 1만1000㎡ 확보 규정에 따라 부족한 3000㎡만 공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고교생 진로·진학 체험

7일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전공 알림 박람회장을 찾은 고등학생들이 평소 관심이 있는 학과 홍보부스를 찾고 있다.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진로·진학 선택을 돕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열린 이 행사에는 전남대 78개 학과(94개 전공)가 홍보부스를 설치했다.

7일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전공 알림 박람회장을 찾은 고등학생들이 평소 관심이 있는 학과 홍보부스를 찾고 있다.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진로·진학 선택을 돕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열린 이 행사에는 전남대 78개 학과(94개 전공)가 홍보부스를 설치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환경청, 영산강 녹조 대책 논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면 서 영산강에 녹조가 발생(광주일보 5일자 7면)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본격 대응에 나섰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일 영산강·섬진강 조류저감 대책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영산강 수질은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가 확산될 가능

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별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농어촌공사는 상류지역의 4개 댐의 하천방류량을 1일 평균 20만t에서 30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승촌보와 죽산보의 관리 수위를 하향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가동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학교급식 사용땐 사전 공지

교육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을 연말부터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됐는지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 개정 학교급식법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지 방법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 중 학교급식에서 공지할 대상인 원재료는 난류(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 등 12가지다.

학교에서는 이들 원재료의 식별번호가 표시된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신고, 급식을 할 때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이나 교실에 게시한다./연합뉴스

www.elysia.co.kr

“축복 받은 집”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성인	23,000 / 27,000	30,000 / 33,000
초등학생	12,000 / 14,000	15,000 /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 9,000	10,000 /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 (나주동)
☎ 061-332-1111

- 150석 규모 웨딩홀
- 100석 규모 연회장
- 50석 규모 연회장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 385-9696
성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엘리시아 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빅프로젝트 및 맞춤형식 완비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정식 코스요리
A코스 40,000원
B코스 50,000원
C코스 60,000원
(1인기준 2인이상)

주말 가족특선
4인 한상차림 100,000원
(토요일, 공휴일에 한함)